

민선8기 3주년 성과·비전 발표

전춘성 진안군수, “생태·관광·균형발전 본래도… 군민 체감 실질적 변화 실현” 계획 밝혀

진안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상황실에서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군정 주요 성과와 향후 비전을 발표했다.

간담회에서 전춘성 군수는 “지난 3년은 군민과 함께 진안의 내재적 성장 기반을 마련해온 시간이었다”며 “전혀의 자연환경과 고유 자산을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군민 모두가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기반을 하나하나 마련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추진했던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성과로는 용담호 수변구역 해제를 위한 환경부의 행정절차가 본격화되며 규제 완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군민 대다수가 용담호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기수도기본계획’에 광역상수도 공급을 반영시키고, 경제성 부족으로 제의했던 구간도 도비 120억 원을 확보해 공사에 착수했다.

또한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전북개발공사로부터 368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월랑지구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했다. 또한 스포츠 특화 도시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단위 대회 및 아웃도어 행사를 지속 유치했으며 60년만에 처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민체전 개최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힘쓰는 결과 ‘진안고령 스마트팜 조성’ 사업이 확보와 ‘범품홍삼직접화 단지조성’ 사업이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에도 선정됐으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등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섰다.

진안군은 이러한 노력의 바탕으로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올해 발표한 ‘농촌 삶의 질 지수 평가’에서 전국 3위를 차지하며, 살기 좋은 농촌 도시로서의 위상을 입증한 것이다.

이제 진안군은 ‘생태·관광·균형발전’ 기반의 구축으로 군정 목표로 설정한 ‘생태건강치유도시’의 본격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지역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관광·산업 자원으로 적극 활용해 체류형 관광지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또한 특정 명소에 집중됐던 관광 수요를 분산하고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관광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신 성장 기반 구축도 강화할 계획이다. 진안군은 스마트팜 단지 조성과의 농작업 대형 확대, 농기계 임대사업소



진안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상황실에서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군정 주요 성과와 향후 비전을 발표했다.

원 등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섰다.

진안군은 이러한 노력의 바탕으로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올해 발표한 ‘농촌 삶의 질 지수 평가’에서 전국 3위를 차지하며, 살기 좋은 농촌 도시로서의 위상을 입증한 것이다.

이제 진안군은 ‘생태·관광·균형발전’ 기반의 구축으로 군정 목표로 설정한 ‘생태건강치유도시’의 본격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지역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관광·산업 자원으로 적극 활용해 체류형 관광지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또한 특정 명소에 집중됐던 관광 수요를 분산하고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관광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신 성장 기반 구축도 강화할 계획이다. 진안군은 스마트팜 단지 조성과의 농작업 대형 확대,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충 등 첨단 농업기술을 적극 도입해 농가 소득과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약 1조 5,000억 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유치를 추진하며 대규모 국책사업 기반을 다지고 있다.

정주 여건 개선도 눈에 띈다. 학전지구에 문화예술회관과 도서관, 광장 등 복합문화시설을 확충해 생활 인프라를 대폭 확장할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은 오랜 시간 정부 정책에서 소외돼 왔지만, 이제는 개발 재원을 넘어 자연이 새로운 기회로 주목받는 시대가 열렸다”며 “2026~2027년 ‘진안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군민의 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진안,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제19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삼도(三道) 호국안보결의대회'가 지난달 30일 무주예체문화관에서 개최됐다.

국가안보 의지·전우애 다져

제19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삼도 호국안보결의대회 성료

‘제19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삼도(三道) 호국안보결의대회’가 지난달 30일 무주예체문화관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삼도 호국안보결의대회는 전북 무주군, 경북 김천시, 충북 영동군 지역의 월남전 참전용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전우애를 다지는 자리로, 무주군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영희 무주군의회 부의장, 윤정훈 전북도위원을 비롯해 삼도(전라북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지부장들과 무주군(지회장 주라창)과 김천시(지회장 문하성), 영동군(지회장 전호진) 지회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주라창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무주군 지회장은 “이 자리가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미래 세대에 안보 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우리는 월남전 참전용사들로서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

는 데 마음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분회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장인팔 전우(무주군지회), 박구부 전우(영동군지회), 김현조 전우(김천시지회)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로부터 표창장을 수상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여러분의 숭고한 헌신과 고귀한 희생 덕분”이라며, “이 자리가 삼도 화합과 발전, 나아가 국가안보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삼도 호국안보결의대회는 2005년 무주군 삼도봉 정상에서 시작돼 올해로 19회째를 맞았다. 매년 삼도(무주, 김천, 영동) 시군에서 윤번제로 개최되며 월남전 참전용사들의 용맹함과 기개를 드높이고 전사한 동료들의 넋을 기리며 회원 간 우애를 다지고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장수 쿨밸리 페스티벌 추진 보고회 개최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해줄 장수군 대표 여름 계곡 축제인 제3회 장수 쿨밸리 페스티벌이 지난달 30일 개최된 추진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는 최훈식 군수를 비롯해 류지봉 행정복지국장, 성영운 농산국장, 각 실·과장이 참석해 공연·체험 콘텐츠 구성부터 교통, 안전, 먹거리 운영까지 축제의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장수 쿨밸리(Cool Valley) 페스티벌은 오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반암면 방화동자연휴양림 일원에서 펼쳐지는 여름 계곡 축제다.

이번 축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여름 휴양지 육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장수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기획됐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물과 공연이 어우러진 ‘쿨밸리 밸리밤’, ‘맨손 송어잡이’ 확대, ‘쿨밸리 워터파크’ 운영, ‘게릴라 이벤트 체험’ 등 무더위를 날려줄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열려 관광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전망이다.

또한 군은 이번 축제에서 입장료를 전면 폐지하고 관내 주민이 체험과 판매 부스를 100% 운영하는 ‘상생형 축제’로 전환해 지역과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 원평지 들소리·농요 시연

진안군은 지난달 30일 마령면 평지리 원평지마을에서 들소리 및 농요를 시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시연은 2025년 미래 무형유산 발굴 및 육성사업에 선정된 ‘진안 원평지 들소리 및 농요 가치 발굴 용역’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원평지 들소리 보존회에서 시연을 맡아 진행했다.

원평지 마을에서 전송되어 온 들소리 및 농요 8종을 마을 풍물패의 기둥을 시작으로 모심는 소리인 ‘상사소리’를 비롯해 논매기 과정에서 불리는 ‘양산도’, ‘방개타령’, ‘산타령’, ‘매화타령’, ‘예위싸호’, ‘뚜름마해’, 마을로 돌아오며 부르는 ‘설마타령/사람가’ 등이 시간대별·작업 순으로 진행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폭염기 온열질환·산업재해 예방 최선

무주군이 여름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무주군은 오는 9월까지 사업장 자체점검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하며, 예방 수칙(물, 바람, 그늘, 휴식, 보냉 장구, 음급조치) 실천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온열질환 발생 시 신속 조치를 위해 상황 보고 체계를 유지하고 소방서, 보건의료원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무주군 누리집, 안내 문자,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전광판, 이장회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폭염 관련 정보도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폭염기



농업인 건강 보호를 위한 마을 단위 예방 교육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통풍이 잘되는 옷 착용과 장이 넓은 모자 사용, 20~30분 간격의 규칙적인 휴식, 오후 2~5시 ‘무더위 휴식 시간제’ 준수를 독려하며 폭염기 작업 최소화를 당부하고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곡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